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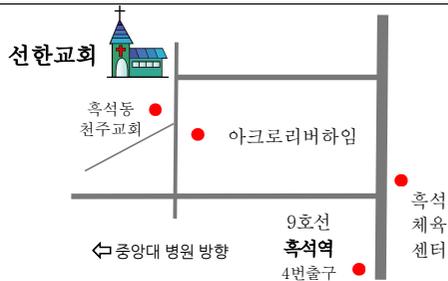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b>주 일 예 배</b>	1부 주일 오전 9:30	<b>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b>	
	2부 주일 오전 11:00		
<b>오 후 예 배</b>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b>중 국 어 예 배</b>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b>수 요 예 배</b>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 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b>금 요 기 도 회</b>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 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b>새 벽 예 배</b>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b>셀 가족 모임</b>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b>사 역 자</b>	<b>담임목사 임 춘 배</b>	<b>국 내 선 교 사</b>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b>해 외 선 교 사</b>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진만	<b>협 력 교 회</b>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b>은 퇴 장 로</b>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b>장 로</b>	박 영 근 (집사장)	<b>관 리 장 로</b>	손 석 규
	유 신 응, 조 윤 익	<b>500/50 교회</b>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31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1장 (통일찬송가 21장)
교 독 문		교독문 27 (시편 51편)
찬 양 과 경 배		218장 (통일찬송가 369장)
대 표 기 도		유신용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5장 38 ~ 42절
설 교		<b>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b>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지혜의 말을 듣는자 (잡1:20-33)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배 안내</li> <li>2. 개인경건훈련 안내</li> <li>3. 코로나19 기도 제목</li> <li>4. 국내선교 및 전교인 수련회</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일예배: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 (11시 예배영상 제공)</li> <li>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 (영상제공하지 않음)</li> <li>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li> <li>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br/>-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li> <li>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li> <li>3. 성경일독하기: 일독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일독 기념품 증정)</li> <li>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li> <li>1.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li> <li>2.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li> <li>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합니다.</li> <li>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li> <li>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li> <li>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li> <li>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선교와 전교인 수련회는 갖지 않습니다.</li> </ol> |
|---|--|

한주간의 기도제목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할수 있는 것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를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	--

찬송 :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통 342)

본문 : 역대상 3장 10~24절

말씀 : 솔로몬 때만 해도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둘로 갈라졌고 결국 다윗의 후손은 두 지파만 남게 됩니다. 비록 작은 나라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갈라졌습니다. 다윗의 자손들만 왕 노릇 한다는 데 불만이 커졌고, 이에 여로보암이 왕에게 정식으로 세금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참다운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길로 행할 때 그 자격을 유지하는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강경책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군대를 모아 치려고 하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남은 유다마저도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유다의 통치자들은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유다를 통치한 다윗의 후손 중에는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악하다는 뜻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품과 상관없이 세상을 따라가고 유다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그는 악한 왕입니다. 물론 은혜를 받고 부흥이 일어난 왕의 성품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사 왕처럼 유다 안의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개혁을 단행한 왕도 있었지만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좋아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밧 같은 왕 때문에 유다는 큰 위기를 몇 차례 겪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다 왕들이 실패했지만 다윗을 닮은 왕도 나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앗수르를 불러서 이스라엘과 수리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앗수르가 약속을 깨고 예루살렘까지 공격하는 바람에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유다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앗수르 군대 18만5000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게 된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기도해 15년간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됩니다. 또 유월절에는 북쪽의 망한 이스라엘 부족들까지 다 불러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역대기에 다윗의 후손이 바벨론에 끌려간 후 족보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라가 망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제목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마5:38-42)

서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론

1.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의 의미(38절)
  - (1) 출21:23-25/레24:17-20/신19:21 : 재판법
  - (2) 개인의 보복과 복수를 금지한 것
  - (3) 그러나 이 법을 사적으로 보복할수 있는 근거로 사용함
2. '악한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의미(39절)
  - (1)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복하지 말라'는 것
  - (2) 세가지 예: ①'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39절:모욕) ②'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40절:박탈) ③'역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41절:무례)
  - (3) 미움과 증오, 원한과 복수심을 갖지 말라.
  - (4) 주며 거절하지 말라(42절).
3. 교훈
  - (1)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
  - (2) 마음속에 증오심도 갖지 말라.
  - (3)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롬12:17)

결론

보복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일을 도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유신웅 장로	조윤익 장로
------	--------	--------

찬양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본문	로마서 2:17-29
	<p>구약 시대에도 할례의 흔적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세례의 흔적만이 아니라 세례에 걸맞은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건, 신약시대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건 관계없이, 그 행위로 보자면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마음을 토해 내는 자기 격리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과의 자기연합을 또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p> <p>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면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내면적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과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기 격리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p>
묵상 질문	1. 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버리고 잘라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찬양과 기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 304)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고든 맥도널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만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처럼 사실 기독교와 여타 종교는 행위 면에서 비슷한 면이 많아 표면상으로는 일반인들이 자세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 자비, 선한 행실, 도덕과 인간 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어 행위에 근거해 기독교만의 유일한 특성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진리(the unique truth)가 있는데, 기독교는 구원의 측면에서 행위의 종교, 수양의 종교, 선행의 종교라기보다 은혜의 종교에 훨씬 가깝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신의 호의(favor)와 은혜로 값없이 새롭게 변화된 신분을 선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조건 없이 나를 받아 주고 사랑해 줌으로 인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이란 어떤 조건이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아가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p>
말씀 나누기	로마서 4:9~17
묵상포인트	<p>바울은 이신칭의의 실례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할례를 말합니다. 왜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할례를 언급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이나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복과 구원이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때는 할례를 받은 이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습니다(창 15:6). 이는 아브라함의 이신칭의가 인간의 행위나 자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 줍니다. 그는 할례를 받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지를 보여 줍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건은 그가 믿는 이방인의 조상이 되며, 동시에 의롭다 인정받은 후 할례 받은 사건은 그가 유대인의 조상도 됨을 논증합니다.</p>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어떤 이유로 주어졌나요?(11~13절)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나요?(16절)
적용하기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보다 행위(공로)를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아무런 자격 없는 저를 택하셔서 믿음의 반열에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의의 근거로 삼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 원합니다. 제 의와 삶의 이유 되신 주님만 믿고 따르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본문	로마서 4:13~25
	<p>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믿음'을 풀어 정의하면, '죄인 된 인생의 나로서는 무력함과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태이고, 내편에서의 믿음은 파산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 약속, 그 은혜만 오롯이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깐 본문의 '믿음'을 '은혜에만 붙들려 있는 상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p> <p>아브라함의 자기 믿음, 자기편에서 발동된 믿음은 흔들거리고 요동치고 체념하고 절망했지만, 그 은혜에만 절박하게 붙들려 있는 그 믿음은 점점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잘 나서 그 은혜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도망칠 곳도 없고, 그 은혜와 약속에 붙들려 있지 않고서는 뾰족한 수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은혜만, 그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만 절실하게 의지하고 기대어가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상황은 절망적이고 파산 난 믿음을 가지고 요동치며 걸어가고 있지만,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만 붙들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밖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 그 은혜에만 절실히 의존하는 그 신앙이 점점 단단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하고 씨름하며 하나님만을 의존 해가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p>
묵상 질문	1.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풀어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본문	로마서 3:1~20
	<p>그리스도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참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단순한 소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과시용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실천하려 합니다. 말씀 맡은 것이 특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준행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따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 <p>반면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만 만족합니다. 말씀은 단지 종교적 교양에 불과합니다. 행하면 좋지만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죄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는 반사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말씀과 삶의 이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접촉점 없는 평행선만을 그어갈 따름입니다.</p> <p>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은 그 말씀을 단순한 활자로 보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좇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격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기도 하고 왜곡되어 투영되기도 합니다.</p> <p>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참하나님되심을 명백히 드러내는 창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맡겨졌다는 사실은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p>
묵상 질문	1.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본문	로마서 3: 21-31

지금까지 율법을 희생시키고 믿음을 강조해왔던, 즉 율법과 믿음이 서로 대립관계인 것처럼 주장해왔던 바울의 논조가 갑자기 변합니다.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이 율법에 제시된 제사를 지내고 계명을 철저히 실행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속량을 통해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에 더 이상 율법을 통한 구원은 폐기되었음을 공표합니다. 더불어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야 말로 더욱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의 말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굳게 지키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굳게 지킨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이 시대를 향한 종교개혁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상 질문	1. 믿음과 율법은 어떤 관계인가요?
-------	----------------------

오늘의 기도	
--------	--

찬양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본문	로마서 4:1-12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는데, 그의 행위로 된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는 하나도 없었다는 말인지, 그리스도인은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으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첫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한번 더 강조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로 드러났는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은혜 때문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은혜의 결과이지, 은혜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할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목상 질문	1.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	-------------------------------------

오늘의 기도	
--------	--